



명사초대석 ②

金千命
(사진작가)

사진을 찍어 오기 40여년, 처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인물사진을 찍다가 툭툭이 만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해 스튜디오를 뛰어나와 자연사진만을 찍게 되었다.

그래서 반평생을 집보다는 자연속에서 살았다. 봄이면 야생화가 만발한 깊은산 계곡을 뒤지며 자연의 오묘한 신비를 만났고, 여름이면 애써 파도가 아우성치는 바다를 찾아 바다같이 넓은 인생의 무한한 가치를 배웠다. 그리고 가을에는 갈대가 나부끼는 들과 강가에서 새들과 벗하고, 겨울에는 눈보라 치는 산하와 설화의 아름다움을 앵글에 담기 위해 설악산과 한라산을 헤맸다.

그렇게 자연속에서 살면서 나는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내 人生旅程의 거울로 삼아 <욕심 없이 사는 삶> <순리대로 사는 삶>을 살리라 노력했지만, 아직도 자연을 닮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안타까운 자연파괴와 산쓰레기

4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의 자연은 그 어느 나라의 자연보다 아름답고 신비하다. 높은 산에는 깊은 골이 있게 마련이며, 작은 개여울은 서로 만나 큰 강을 이룬다. 그리고 그 속에 온갖 생명들이 삶을 구가하고 있다.

나는 이 신비한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에 넋을 잃는데, 왜 창조주는 우리에게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만나게 하시고, 캄캄한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이 근년 들어, 사람들의 무질서로 파괴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나 필자와 같이 아름답고, 신비한 산하를 카메라의 앵글에 담은 입장에서는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0여년 전만 해도, 설악산과 지리산 그리고 한라산의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산 여기저기에 사람과 차를 위한 길을 펼쳐 놓음으로써, 산의 모습을 흉측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몰려와 자연을 더럽히고 있다.

산을 더럽히려고, 산에 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산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쓰레기로 산을 더럽히는데 열심이다. 음식 찌꺼기는 보기에 싫지만 그래도 썩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비닐봉투, 스티로폼 용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어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우리의 산은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할 정도로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산에서 취사를 금지하자 사람들은 도시락을 지참하게 되었는데, 그 1회용 도시락 그릇이 더욱 자연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 때로는 사진찍기 보다, 그 도시락 쓰레기를 치우는 일로 하루를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은 요즘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자연보호 방법으로, 산의 휴식년제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소정의 자연보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입산증명서를 발부해 등산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산은 결코, 먹고 노래 부르기 위해 찾아가는 행락장이 아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가치와 질서를 배우는 심신 수련장이다. 따라서 산은 자연의 가치를 알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어야 우리의 산이 보호되고 그래야 “사람이 자연을 보호해야, 자연도 사람을 보호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현실로 표출되리라 믿는다.

*필자 약력

- ▲1922년 황해도 출생
- ▲해방 전까지는 중국에서 살다가 귀국해, 인상사진을 위한 스튜디오를 자영하다가 자연사진을 전문으로 찍기 시작 함.
- ▲그동안 한국관광공사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많은 사진상을 받음.
-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으로 우리나라의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충무로에서 <자연 PHOTO LIBRALY>를 운영 함.